

한·중 동화의 일제(日帝)에 대한 알레고리 연구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을 중심으로

두전하(婁全霞)*

국문초록

한·중 아동문학과 서방 아동문학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원인 가운데 핵심적인 요인은 한·중 아동문학이 식민지·반식민지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식민지·반식민지의 아동문학이 반제국주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은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었다. 그런데 아동문학은 아동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제 의식을 반영하더라도 쉽고 재미있어야 했다. 동화는 알레고리를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반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장르였다.

본고에서는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을 중심으로, 한·중 동화의 일제에 대한 알레고리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대한 알레고리도 함께 분석했는데,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선과 일본에 대한 알레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토끼와 원숭이」에서는 조선을 토끼 나라, 일본을 원숭이 나라로 빗대는 알레고리를 활용했다. 『금오리제국』에서는 조선을 대부도, 일본을 금오리제국에 빗대는 알레고리를 활용했다.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에서는 일왕에 대한 알레고리도 확인할 수 있다. 「토끼와 원숭이」에서 “천하의 왕”을 자임하는 왕 원숭이는 일왕에 대한 알레고리인데, 왕 원숭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숭이 나라의 침략주의·제국주의적 속성을 알 수 있다. 『금오리제국』에서는 성서의 창세설을 패러디하여, 금오리하느님이 오리신과 오리똥여신을 창조하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오리신·오리똥여

* 浙江师范大学 人文学院, 中国语言文学博士后流动站, quanxia_1203@hotmail.com

신은 황제·황후라고 불리는데, 이는 일왕 내외에 대한 풍자이다. 『금오리제국』에서는 무사도에 대한 알레고리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31년에 발표된 정철의 동화 「두더지나라와쥐나라전쟁」에도 무사도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들어 있다.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에서는 일제의 수탈에 대한 알레고리도 확인할 수 있다. 「토끼와 원숭이」에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풍자하며, 알레고리를 통하여 창씨개명/신사참배 강요·황국신민화 교육 등을 통한 조선인/조선어 말살정책을 비판했다. 『금오리제국』에는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알레고리가 들어 있는데, 이를 통해 장텐이가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무척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아동문학 작가로서 이웃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분노하고, 구체적인 알레고리로 풍자하며 비판했던 장텐이의 창작 활동은 제국주의·파시즘에 반대하며 인종주의·사회진화론·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아시아의 독자들에게 국제연대의식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중 아동독자들은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을 읽으면서, 제국주의·파시즘에 대한 문제의식도 쉽고 재미있게 얻을 수 있다. 두 작품은 알레고리를 활용한 동화의 훌륭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주제어: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장텐이, 『금오리제국』, 한국 동화, 중국 동화, 일본제국주의, 알레고리

목 차

- | | |
|-----------------------|--------------------|
| 1. 서론 | 4. 일제의 수탈에 대한 알레고리 |
| 2. 조선과 일본에 대한 알레고리 | 5. 결론 |
| 3. 일왕과 '무사도'에 대한 알레고리 | |

1. 서론

한·중 아동문학과 서방 아동문학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원인 가운데 핵심적인 요인은 한·중 아동문학이 식민지·반식민지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식민지·반식민지의 아동문학이 반제국주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은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었다. 그런데 아동문학은 아동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제의식을 반영하더라도 쉽고 재미있어야 했다. 동화는 알레고리를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반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장르였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제의 탄압 때문에 반제의식을 반영한 동화가 활발하게 발표되기 어려웠지만, 마해송의 「토끼와 원숭이」·박인호의 「탈을 쓴 호랑이」·정철의 「두더지나라와쥐나라전쟁」 등에 반제의식이 담겨 있었다. 중국에서는 1931년 9·18사변 이후 『앨리스 아가씨』(1933)와 같은 반제국주의 동화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1937년 7월 7일 중화민족전면항일전쟁(中华民族全面抗日战争) 개전 이후 일제를 비판하는 동화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장텐이(张天翼, 1906~1985)의 『금오리제국(金鸭帝国)』·허이(贺宜, 1915~1987)의 『나무로 새겨진 인간(木头人)』(1940)·쑤쑤(苏苏, 1910~1984)의 『신(新) 피노키오 모험기(新木偶奇遇记)』(1940) 등이 있다.

현재 「탈을 쓴 호랑이」와 「두더지나라와쥐나라전쟁」은 거의 잊힌 작품이지만, 「토끼와 원숭이」는 2013년 동아시아 대표동화선집을 출간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동화로 선정되어 단행본으로 출간될 만큼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국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장텐이의 『금오리제국』은 일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한 알레고리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을 중심으로, 한·중 동화의 일제에 대한

알레고리를 분석할 것이다.

두 작품은 연재 중단이라는 우여곡절을 거치며 어렵게 완성된 작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토끼와 원숭이」는 『어린이』 1931년 8월호에 1회분이 처음 발표되었는데, 작가가 직접 연재를 중단했다. 1933년 1월과 2월 『어린이』에 연재를 재개했으나, 3회 원고를 압수당하며 연재가 중단되었다. 해방 이후 『자유신문』에 1946년 1월 1일 전편(前篇), 1947년 1월 1일부터 8일까지 후편(後篇)이 발표되었다. 이후 마해송 동화집 『사슴과 사냥개』¹·『겨레아동문학선집』²·『마해송 전집』³ 등에 수록되었는데 일부 생략된 문장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최근에 출간된 단행본⁴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금오리제국』은 처음에 『제국주의 이야기(帝國主義的故事)』라는 제목으로 1938년 2월 20일부터 우한(武漢)에서 발간된 잡지 『소년선봉(少年先鋒)』에 연재되었다. 창간호부터 9회 정도가 연재되다가, 잡지가 폐간되며 연재가 중단되었다. 이후 『금오리제국』으로 제목을 바꾸고, 1942년 1월 15일부터 구이린(桂林)에서 간행된 『문예잡지(文藝雜誌)』 제1권 1기부터 제2권 6기까지 연재되었다. 본고에서는 『장텐이아동문학전집』에 수록된 판본을 검토할 것이다.

「토끼와 원숭이」는 작품의 중요성에 비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⁵ 『금오리제국』도 장텐이의 다른 동화들(『다린과 쇼린』·『마왕 투투』)이 번역 출간되어 있는 데 비하여,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두 작품의 알레고리를 분석하는 본고의 작업이 작품들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마해송, 『사슴과 사냥개』, 창작과비평사, 1977.

2 겨레아동문학연구회 편, 『겨레아동문학선집 1 엄마 마중』, 보리, 1999.

3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마해송 전집 1 바위나리와 아기별』, 문학과지성사, 2013.

4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여유당, 2013.

5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동화—「토끼와 원숭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한연, 「마해송 동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9.

2. 조선과 일본에 대한 알레고리

일제에 대한 알레고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대한 알레고리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선과 일본에 대한 알레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토끼와 원숭이」에서는 토끼 나라와 원숭이 나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큰 개울 동편에는 원숭이 나라가 있고, 개울 서편에는 토끼 나라가 있었다.

개울 동편 원숭이는 몸이 까맣고 얼굴과 궁둥이가 빨갛다. 개울 서편 토끼는 몸이 하얗고 커다란 두 귀가 머리 위에 쭉 뻗었다.

개울 동편 원숭이는 영악하고 싸움 싸우기를 좋아하고, 개울 서편 토끼는 마음씨가 아름답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즐겁게 살기를 좋아했다.

아직 세상이 문명하지 못한 때라 큰 개울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서로서로 모르고, 그 개울을 세상의 끝으로 알고 지냈다.⁶

개울 서편에 있는 토끼 나라와 우편에 있는 원숭이 나라는 동해 서쪽에 있는 조선과 동쪽에 있는 일본을 빗댄 설정이다. “마음씨가 아름답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즐겁게 살기를 좋아”하는 토끼는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민족을 상징한다. 반면에 “원숭이는 영악하고 싸움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일본에 대한 풍자이다.

조선을 토끼에 빗대는 것은 익숙한 알레고리인데, 그 근원은 ‘한반도의 토끼 형태론’이다. 한반도의 토끼 형태론은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 1856~1935)가 「조선산맥론(朝鮮山脈論)」(1903)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야즈 쇼에

6 마해송, 위의 책, 7~10면.

이(矢津昌永, 1863~1922) 등 다른 일본인 학자들이 확대 재생산했다.⁷ 일제 강점기에 등장한 한반도의 토끼 형태론은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한반도의 토끼 형태론은 속설로 널리 전파되어,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1950년에 발간한 잡지 『소년』지에도 「지도」라는 제목의 시가 지도 모양의 그림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지도는 토끼 모양이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아직도 40~50세 이상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한반도가 토끼를 닮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⁸

「토끼와 원숭이」가 『어린이』에 처음 발표되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박인호의 동화 「탈을 쓴 호랑이」⁹ 역시 조선을 토끼 나라로 빗대는 알레고리를 활용했다. 이 작품은 토끼 나라를 금강산 가운데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으며 평화롭게 사는 나라로 묘사했다.

「토끼와 원숭이」에서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원숭이 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토끼들의 이름이 시시·사사·소소라는 것이다. 일본의 50음도를 살펴보면 사(さ) 행에 사(さ)·시(し)·스(す)·세(せ)·소(そ)가 있다. 『토끼와 원숭이』를 『어린이』에 처음 발표하던 때 마해송이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시·사사·소소라는 이름은 일본의 50음도에서 차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에서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토끼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숭이 나라는 시시·사사·소소를 결박한 채 앞장세우고 토끼 나라를 침략한다. 토끼 나라를 강점한 후, 대장 원숭이는 시시·사사·소소를 원숭

7 목수현, 「국토의 시각적 표상과 애국 계몽의 지리학—최남선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7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19~21면.

8 목수현, 위의 글, 24면.

9 박인호, 「탈을 쓴 호랑이」, 『별나라』, 1931.9.

이 나라의 공로자라고 말하며 풀어 준다.

“(…전략…) 시시와 사사, 소소 그대들이 아니었던들 어찌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으리요. 참으로 우리나라의 공로자로다. 너희를 집으로 보내 줄 것이니 길을 가리켜라.”¹⁰

원숭이들은 글방에서 토끼들에게 원숭이 말을 가르친다. 어린 토끼 시시는 글방에서 배운 “원숭이는 세상에 제일가는 짐승이라”¹¹는 말을 외치고 다닌다. 이러한 설정들로 미루어 볼 때 작가는 일제의 창씨개명 강요·황국신민화 교육 등을 통한 조선인/조선어 말살정책을 풍자하기 위하여, 토끼들에게 일본의 50음도에서 차용한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오리제국』에서는 일제를 금오리제국에 빗대는 알레고리가 나타난다.

아주 옛날에 어느 야만적인 민족이 있었는데, 몹시 큰 섬에 살고 있었어요. 이 야만족은 여량족(餘糧族)이라고 불려요.

세월이 흐른 후 여량족은 섬에 나라를 세우고 여량국이라고 했는데, 금오리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 이 나라는 아주 문명적인 입헌군주국이 됐는데, 금오리제국이라고 불려요.¹²

금오리국이 입헌군주국이 되면서 금오리제국이 되었다는 설정은 1868

¹⁰ 마해송, 위의 책, 22면.

¹¹ 마해송, 위의 책, 25면.

¹² 张天翼, 「金鴨帝国」, 『张天翼儿童文学全集』(三卷), 北京: 中国少年儿童出版社, 2002, 1면.

년 명치유신(明治維新)으로 입헌군주국이 된 일본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그렇다면 일본인을 오리에 빚댄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작가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추측만 가능한 상황인데, 작가는 일본인들이 왜나막신을 신고 걷는 모습에서 뒤통뒤통 걷는 오리를 연상한 듯하다. 풍자와 해학이 탁월한 작가 장텐이¹³다운 면모가 잘 드러나는 상상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오리제국』에도 조선과 일본에 대한 알레고리가 나타난다. 금오리제국은 대부도(大龜島)의 야만인들을 문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대부도는 조선, 금오리제국은 일본에 대한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

(…전략…) 어느 금오리 신사가 아주 자비롭게 말했어요.

“이 야만인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그들을 야만적인 삶에서 구하여 문명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우리 금오리제국의 책임이지요.”

어느 권부회(勸夫會)의 여자도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제국의 상업가들은 이미 문명적인 물품을 거기에다 많이 가져다 놓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광산도 캐 주고, 고용해서 일도 시켜 주고, 공부도 시켜 주고, 학교도 세워 줬죠. 그리고 우리가 군함을 보내서 질서도 유지해 주잖아요. 보세요, 이 문명적인 것들을!”

하지만 랑마오 후작은 오른손을 들며 말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모님, 대부도인들을 문명적으로 바꾸는 건 천하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야만적인 민족입니다. 황인, 백인, 흑인, 홍인, 청인을 막론하고…….”¹⁴

13 두전하, 「이주홍과 장텐이의 아동문학 비교 연구—카프와 좌련 시기를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제26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3, 128~131면.

작품에서는 금오리제국인들의 대화를 통하여 제국주의 일반의 사회진화론을 비꼬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제국주의적 내셔널리즘으로서의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 ‘조선’이라는 ‘역사적 피(被)보호자’가 필요”¹⁵했던 일제를 풍자하는 것이다. 사회진화론에 따르면,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조선어 말살정책·황국신민화 교육 등이 모두 미개한 조선을 개화(서구화·근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탈바꿈한다.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 1870~1933)는 1913년 조선에 구연 여행을 다녀온 후, “그 땅에서는 지금도 모모타로(桃太郎)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¹⁶고 언급했다. 모모타로는 일본 옛이야기에 나오는 영웅인데¹⁷, 이와야 사자나미는 조선이 일본 옛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소회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조선사 ‘정체론’은 일제 식민사관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¹⁸

3. 일왕과 ‘무사도’에 대한 알레고리

「토끼와 원숭이」에서 원숭이 나라의 왕 원숭이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한참 만에 굉장히 큰 집으로 쑥 들어갔다.

높다란 곳에 새빨간 얼굴 감장 털, 틀림없는 원숭이 한 마리가 바라지게 앉아

14 张天翼, 위의 책, 214~215면.

15 박노자, 「‘문명개화’ 선망과 대일 적대심 사이에서—신채호의 일본관」, 『일본비평』 3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27면.

16 이와야 히데오, 『모모타로주의 교육』, 동아당, 1915.2, 44~45면, 오오다케 키요미,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와 근대 한국」,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5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162면에서 재인용.

17 두전하,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15, 81면.

18 박노자, 같은 곳.

있고, 그 아래로 수많은 원숭이들이 탕을 끓어지고 늘어서 있었다.

시시와 사사, 소소와 까까는 앞에 끌려 나갔다.

“오오, 너희가 토끼들이냐?”

하고 왕 원숭이가 말했다.

“나는 너희도 알겠지만 천하의 왕이다. 천하에는 우리 원숭이 대국밖에 없고, 대국 왕 내가 곧 천하의 왕이니 토끼 나라란 것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토끼 나라를 차지하고 다스려야 할 것이니, 캐캐. 너희는 그 나라 형편을 잘 이야기해서 하루바빠 쳐 없애게 하라. 캐캐캐.”¹⁹

왕 원숭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숭이 나라의 침략주의·제국주의적 속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천하의 왕”을 자임하는 왕 원숭이는 일왕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왕 원숭이 아래로 수많은 원숭이들이 끓어지고 있는 ‘탕’이다. ‘탕’이라는 무기의 이름은 총소리에서 따온 것이 분명한데, 즉 탕은 총을 빗댄 것이다. 일본은 총을 비롯한 신식(서구식) 무기를 일찍 도입하여 현대적인 무장을 갖추고, 제국주의 단계로 나아갔다. 탕은 다름 아닌 일제의 무력에 대한 상징이자, 일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파시즘²⁰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금오리제국』에서도 일왕에 대한 알레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성서의 창세설을 패러디하여, 금오리하느님이 오리신과 오리똥여신을 창조하는 흥미로운 설정이 나와 있다.

내 조상 금오리하느님은 한 마리의 오리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기빠서 알

¹⁹ 마해송, 위의 책, 18~20면.

²⁰ 김효신, 「이탈리아 파시즘과 일본 파시즘 비교 소고」, 『이탈리아어문학』 제21집,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7; 김홍식, 「일본 파시즘의 사회적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30집 3호, 한국정치학회, 1996.

을 하나 낳았지요. 나중에 이 알에서 한 마리의 오리새끼가 깨어났어요. 금오리하느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했어요.

어느 날 금오리하느님은 갑자기 또 너무 기뻐서 똥을 썼지요. 나중에 이 똥에서 한 마리의 오리새끼가 깨어났는데, 암컷오리였어요. 금오리하느님은 두 오리새끼를 결혼시켰어요. 둘은 결혼 후에 인간이 되었답니다. 금오리하느님은 둘을 위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남자는 오리신으로 여자는 오리똥여신이라고 했어요.²¹

금오리제국에서는 오리신·오리똥여신을 황제·황후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왕 내외에 대한 풍자이다. 금오리제국인들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를 존경하는 것은 타고난 본능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대황제와 대황후 폐하는 신이시고, 우리 금오리족은 어느 나라보다도 위대하며 고귀합니다. 우리의 대황제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²²

“세계 각국 어디의 군주이든지, 우리의 대황제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황제와 황후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랑족은 왕국이 세워진 뒤부터 지금의 대제국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황제는 여랑족의 가장이시며, 금오리하느님의 인간 대변인이십니다. 우리 금오리인이 태어날 때부터 오리신 폐하를 존경하는 건 본능입니다.”²³

금오리제국에서 황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주장하며 숭배하는 것은 일제의 국가신도(国家神道)²⁴를 풍자한 것이다. 또한 금오리인이 황제를

21 张天翼, 위의 책, 9면.

22 张天翼, 위의 책, 228면.

23 张天翼, 위의 책, 162면.

24 문혜진, 「일제 식민지기 국가신도의 국민도덕화 담론에 관한 소고(小考)－경성제국대학 윤리·

존경하는 것은 타고난 본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파시즘에 대한 풍자이다.

일본파시즘은 온 국민을 ‘무사도(武士道)’로 정신 무장시켜,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만들고자 했다.²⁵ 『금오리제국』에서는 무사도에 대한 알레고리도 확인할 수도 있다.

“아아, 하느님께서 보살피 주실 것입니다. 후작 부인과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나 중에 내가 문부대신에 오르게 될 겁니다. 내게 큰 계획이 있는데, 제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고칠 것입니다. 우리 대여량 무사정신을 제창할 텐데, 이걸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우리는 고정산장에 갑시다.”

(…중략…)

그들은 모두 ‘량마오 후작, 당신의 몸과 정신이 가장 금오리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좀 보여 주세요. 그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민족성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내게 대여량족의 무사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싸움을 잘하고, 금오리인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²⁶

무사정신을 제창하고 금오리제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고칠 것이라는 대목은 무사도를 제창하며 파시즘 교육을 실시했던²⁷ 일본파시즘에 대한

종교 부문 장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8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박규태, 「신도」의 성립—구로다 테제를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제39집,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7; 차남희, 「일본의 시민종교와 신도—메이지 초기의 국가신도를 중심으로」, 『담론 201』 제12권 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9.

25 유불란, 「메이지 부시도(明治 武士道)」론을 통한 동아시아의 자기정체성 형성과정 재고, 『한국정치학회보』 51집 4호, 한국정치학회, 2017; 이인화, 「일본 내셔널리즘의 근원과 근대시기의 국가주의적 변용—기기(記紀)와 무사도(武士道)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78권, 동양철학연구회, 2014.

26 張天翼, 위의 책, 200~202면.

27 박균섭, 「교육칙어와 일본근대교육」, 『일본학보』 제43집, 한국일본학회, 1999; 박충석, 「일본군국주의의 형성—그 정치·사회적 기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4권, 이화여자대학교

알레고리이다.

1931년에 발표된 다른 한국 동화에도 무사도에 대한 풍자가 들어 있다. 정철의 「두더지나라와 쥐나라전쟁」에서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는 두더지나라와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는 쥐나라가 대립한다. 부자나라인 쥐나라는 많은 무기를 만들어 놓은 후, 매일 술을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밤을 보낸다. 비록 무기는 낙후했으나 용맹한 두더지들은 남녀노소 모두 전쟁에 출전하고, 술에 취해 있던 쥐들은 충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자살한다. 쥐 병정들이 ‘하느님’에게 목숨을 맡기며 자살하는 모습은 다분히 무사도를 따르는 일본군을 연상시킨다. 그들 역시 작전에 실패하거나 전진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자살하며 제 목숨을 일왕에게 바쳤다. 쥐 병정들이 자살하는 설정은 무사도와 일본파시즘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볼 수 있다.²⁸

4. 일제의 수탈에 대한 알레고리

「토끼와 원숭이」에서 원숭이 나라는 토끼 나라 강점 후 착취를 시작한다.

토끼 나라의 좋은 집은 온통 원숭이들이 차지하고, 젊은 토끼들은 글방에 오르고 해서 원숭이 말을 배우게 하고 탕을 만들게 하고, 늙은 토끼들은 하루에 하나씩 원숭이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갖다 바치게 하였다.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소, 1999; 이권희, 「메이지기(明治期) 일본의 교육과 전쟁에 관한 고찰」, 『일본사상』 제23호, 한국일본사상학회, 2012; 이권희, 「메이지(明治) 후기 국민교육에 관한 고찰」, 『아태연구』 제19권 제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2; 정형, 「근대 일본의 전쟁영웅(戰爭英雄) 창출에 관한 고찰—메이지기(明治期) 군국주의(軍國主義)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동양학』 제5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3.

28 두전하, 위의 글, 87~88면.

산골짜기까지도 병정 원숭이들이 파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원숭이를 피할 수 없고 원숭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²⁹

원숭이들이 토끼 나라의 좋은 집을 강탈하고 먹을 것을 구해서 갖다 바치게 한 것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³⁰을 의미한다. 또한 젊은 토끼들에게 탕을 만들게 한 것은 강제동원 노동³¹을 가리킨다. 병정 원숭이들이 산골짜기까지도 파수를 보는 설정과 “아무리 해도 원숭이를 피할 수 없고 원숭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는 서술은 일본파시즘 체제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원숭이들은 “글방에 오라고 해서 원숭이 말을 배우게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토끼들을 원숭이처럼 만들고자 한다.

하루는 글방에서 선생 원숭이가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 제일가는 짐승은 원숭이다. 너희는 세상에 제일가는 짐승이 되고 싶지 않으나?”

그리고 토끼들은 한 마리씩 선생 방으로 불러 들어갔다.

선생 방에는 큰 통에 검정 물을 가득 담아 놓고 들어오는 토끼를 풍덩 넣었다.

29 마해송, 위의 책, 25면.

30 김민철, 「식민지배간 일본정부 수탈에 대한 연구—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제연구』 통권 10호, 민족문제연구소, 1996; 김인호,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수탈한 일본 국가기관의 자산 실태—《在外財産等報告書》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전영길·이성익,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일제의 토지수탈 사례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9권 제3호, 한국지적정보학회, 2017.

31 강정원, 「일제 전시체제기 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의 설립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제6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8; 정태현·기광서, 「일제의 반인륜적 조선인 강제노동동원과 임금 탈취」, 『역사와 현실』 제5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정혜경, 「일제 말기 강제연행 노동력 동원의 사례: ‘조선농업보국청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2; 허종호·리철홍·공명성,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발 실태」, 『역사와 현실』 제5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털과 몸뚱이가 까맣게 되었다. 다음 선생은 큰 가위를 들고 토끼의 두 귀를 바삭 잘라 버렸다.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울고 있을 새도 없이 다음 선생은 얼굴과 엉덩이를 박박 면도칼도 깎고, 다음 선생은 거기에 빨간 칠을 해 주고 떡 한 개를 주고, “원숭이는 세상에 제일가는 짐승이다.” 하고 외치라고 했다.³²

토끼의 두 귀를 바삭 잘라 버리고, 얼굴과 엉덩이를 박박 깎은 후 빨간 칠을 하는 것은 토끼의 겉모습을 원숭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런 일을 벌인다면 처참한 동물학대이겠으나, 작품에서는 동화적 상상력이 빛나는 신랄한 풍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일제의 창씨개명/신사참배 강요·황국신민화 교육 등을 통한 조선인/조선어 말살정책³³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금오리제국』에도 금오리인들이 대부도에서 “광산도 캐 주고, 고용해서 일도 시켜 주고, 공부도 시켜 주고, 학교도 세워”³⁴ 주었다고 강조하는 대목이 있다. 그들은 대부도를 더욱 수탈할 계획을 세운다.

량마오 후작의 동서 베이커 선생은 우세이 자작을 통해, 대부도의 폐이상 회사

32 마해송, 위의 책, 26면.

33 김성준,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말살정책 연구』, 경인문화사, 2010; 김신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동화정책」, 『동국사학』 60집,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오오타케 키요미, 「일제 전시통제하(1937~45)의 황국신민화 아동문화의 실태—그림연구, 동화집, 아동도서, 작문집의 고찰」, 『동화와번역』 제7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4; 이명화, 「일제 황민화교육과 국민학교제의 시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0; 이정선, 「전시체제가 일제의 총동원정책과 ‘內鮮混血’ 문제」, 『역사문제연구』 제29호, 역사문제연구소, 2013; 진상숙, 「일제 군부파시즘체제와 ‘식민지 파시즘」, 『동방학지』 제12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최윤수, 「내선일체와 탈식민주의」,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최재성,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0.

34 张天翼, 위의 책, 215면.

에서 일하고 있어요. 페이샹 회사는 이미 대부도에 탄광 회사를 열었는데, 지금은 확장하려고 해요. 그들은 대부도에서 석탄이 풍부한 어느 지대가 마음에 들어, 베이커 선생에게 탄광 확장을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대부도의 왕공 몇 명과 사이가 좋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가 그 일에 간섭했거든요.

량마오 후작은 바오부원포에게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났어요.

“대부도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들은 정말 호의를 모르는구나. 다 짐승들이 다.”³⁵

이어서 금오리제국은 대부도에서 탄광 확장을 막았다는 소리를 듣고, 제국의 이익을 방해한다며 곧장 파병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도가 제국의 손아귀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대부도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한다.

다들 밤 10시가 되도록 헤어지지 않고 먹고 있는데, 시종이 신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신문에 실린 소식은 소동을 일으켰어요. 손님들 몇 명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 대부도가 우리 제국의 이익을 방해해!”

“제국이 모욕당했네. 제국이 모욕당했어!”

“파병! 파병! 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합시다. 제국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해요.”

(…중략…)

그러자 어느 장군이 일어나서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짧게 이야기했어요.

35 张天翼, 위의 책, 366면.

“대부도는 제국의 손아귀에 들어와야 합니다. 대부도는 제국의 생명선입니다.”

량마오 후작은 바오부찬포를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대부도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들은 가장 야만적인 민족이라 살아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³⁶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알레고리이다. 일제는 이미 1886년 1월에 부산 절영도의 저탄소 설치권을 빼앗았는데, 다른 지방으로 확장을 계획했다. “대부도에서 석탄이 풍부한 어느 지대”는 평양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평양은 조선 “최대의 무연탄 생산지이며 평양의 무연탄은 上品質로서 일본 해군성이 함대의 연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평양 탄광의 장악에 주목하고 있었”³⁷다. 하지만 1898년 1월 조선에서 광산 개발과 철도의 자력 부설을 천명하고 개발특허를 외국에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제의 계획은 실패했다.³⁸

금오리제국이 대부도에서 탄광을 확장하는 데 간섭했다는 다른 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이후 조선에서는 러시아에만 탄광에 대한 개발특허를 주었는데, 고종의 아관파천 때인 1896년 함경북도 경원·종성 탄광이 러시아에 대여되었다. 그러나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제가 승리하자, 개발을 하지 못한 채 러시아의 권리는 소멸되었다.³⁹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금오리제국』의 알레고리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를 통하여 장텐이가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무척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张天翼, 위의 책, 375~376면.

37 김은정, 「일제의 한국 석탄산업 침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7, 25면.

38 김은정, 위의 글, 24~25면.

39 김은정, 위의 글, 22면.

5.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을 중심으로, 한·중 동화의 일제에 대한 알레고리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대한 알레고리도 함께 분석했는데,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선과 일본에 대한 알레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토끼와 원숭이」에서는 조선을 토끼 나라, 일본을 원숭이 나라로 빗대는 알레고리를 활용했다. 『금오리제국』에서는 조선을 대부도, 일본을 금오리제국에 빗대는 알레고리를 활용했다.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에서는 일왕에 대한 알레고리도 확인할 수 있다. 「토끼와 원숭이」에서 “천하의 왕”을 자임하는 왕 원숭이는 일왕에 대한 알레고리인데, 왕 원숭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숭이 나라의 침략주의·제국주의적 속성을 알 수 있다. 『금오리제국』에서는 성서의 창세설을 패러디하여, 금오리하느님이 오리신과 오리똥여신을 창조하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오리신·오리똥여신은 황제·황후라고 불리는데, 이는 일왕 내외에 대한 풍자이다. 『금오리제국』에서는 무사도에 대한 알레고리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31년에 발표된 정철의 동화 「두더지나라와쥐나라전쟁」에도 무사도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들어 있다.

「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에서는 일제의 수탈에 대한 알레고리도 확인할 수 있다. 「토끼와 원숭이」에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풍자하며, 알레고리를 통하여 창씨개명/신사참배 강요·황국신민화 교육 등을 통한 조선인/조선어 말살정책을 비판했다. 『금오리제국』에는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알레고리가 들어 있는데, 이를 통해 장토펜이가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무척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서방의 패션쇼나 패션소품에 일제의 욱일기(旭日旗)를 활용하여 논란을 빚는 일이 빈번하다. 사극이 아닌데 내용과 무관하게 욱일기가 등장하는 드라마·영화·게임 등에 대한 항의도 꾸준히 이어진다. 서방에서 독일나치즘과 이탈리아파시즘의 상징물을 공공연히 사용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유독 일본파시즘의 상징물에 대해서만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원인은 일본파시즘의 희생자들이 주로 한국인·중국인 등 아시아인들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잘 모르거나, 자신들과 무관한 일로 여기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반파시즘전쟁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도 여지없이 오리엔탈리즘이 깔려 있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성의 미시적 폭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국주의·파시즘의 거시적 수탈과 반인륜적 학대·학살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문제·침화731방역급수부대·난징대학살·충칭대폭격 등 일제의 반인륜적 학대·학살의 범위나 규모가 독일파시즘의 그것보다 못하지 않거나 그 이상이었던 사실을 세계반파시즘전쟁이라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전 인류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서방, 특히 백인을 동경하고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등의 한국보다 부유하지 못한 국가들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파시즘의 근간이 되었던 인종주의·사회진화론·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를 극복하는 것이 탈식민의 선결과제이다.

중국의 아동문학 작가로서 이웃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분노하고, 구체적인 알레고리로 풍자하며 비판했던 장톈이의 창작활동은 제국주의·파시즘에 반대하며 인종주의·사회진화론·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아시아의 독자들에게 국제연대의식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중 아동독자들은 「토끼와 원

숭이』와 『금오리제국』을 읽으면서, 제국주의·파시즘에 대한 문제의식도 쉽고 재미있게 얻을 수 있다. 두 작품은 알레고리를 활용한 동화의 훌륭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토끼와 원숭이」에는 세계반파시즘 전쟁 종료 이후 다시 제국주의 전쟁을 겪는 조선에 대한 알레고리가 이어진다. 『금오리제국』에도 일제뿐 아니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을 비롯하여 제국주의 일반에 대한 알레고리가 풍부하다. 이에 관한 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겨 둔다.⁴⁰⁾

40) 本文系浙江省教育厅一般项目“左翼儿童文学与中韩儿童文学研究”(项目编号:Y201738689)及浙江师范大学中国语言文学省重点研究基地课题“发生期中韩日‘童话’论争比较研究”的研究成果。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별나라』.

겨레아동문학연구회 편, 『겨레아동문학선집 1 엄마 마중』, 보리, 1999.

마해송, 『마해송 전집 1 바위나라와 아기별』, 문학과지성사, 2013.

_____, 『사슴과 사냥개』, 창작과비평사, 1977.

_____, 『토끼와 원숭이』, 여유당, 2013.

张天翼, 『金鸭帝国』, 『张天翼儿童文学全集』(三卷), 北京: 中国少年儿童出版社, 2002.

2. 논문

강정원, 「일제 전시체제기 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の 설립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제6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8.

김민철, 「식민지배간 일본정부 수탈에 대한 연구—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제연구』 통권 10호, 민족문제연구소, 1996.

김신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동화정책」, 『동국사학』 60집,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김은정, 「일제의 한국 석탄산업 침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7.

김인호,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수탈한 일본 국가기관의 자산 실태—《在外財産等報告書》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김효신, 「이탈리아 파시즘과 일본 파시즘 비교 소고」, 『이탈리아어문학』 제21집,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7.

김홍식, 「일본 파시즘의 사회적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30집 3호, 한국정치학회, 1996.

두전하, 「이주홍과 장텐이의 아동문학 비교 연구—카프와 좌련 시기를 중심으로」, 『동화와변역』 제26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변역연구소, 2013.

_____,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15.

문혜진, 「일제 식민지기 국가신도의 국민도덕화 담론에 관한 소고(小考)—경성제국대학 윤리·종교 부문 장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8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목수현, 「국도의 시각적 표상과 애국 계몽의 지리학—최남선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7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박규태, 「신도의 성립—구로다 테제를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제39집, 한양대학교 일본학 국제비교연구소, 2017.

- 박균섭, 「교육칙어와 일본근대교육」, 『일본학보』 제43집, 한국일본학회, 1999.
- 박노자, 「『문명개화』 선망과 대일 적대심 사이에서—신채호의 일본관」, 『일본비평』 3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 박충석, 「일본군국주의의 형성—그 정치·사회적 기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4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소, 1999.
- 오오다케 키요미,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와 근대 한국」,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5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 _____, 「일제 전시통제하(1937~45)의 황국신민화 아동문화의 실태—그림연구, 동화집, 아동도서, 작문집의 고찰」, 『동화와번역』 제7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4.
- 유불란, 「『메이지 부시도(明治 武士道)』론을 통한 동아시아의 자기정체성 형성과정 재고」, 『한국정치학회보』 51집 4호, 한국정치학회, 2017.
- 이권희, 「메이지기(明治期) 일본의 교육과 전쟁에 관한 고찰」, 『일본사상』 제23호, 한국일본사상학회, 2012.
- _____, 「메이지(明治) 후기 국민교육에 관한 고찰」, 『아태연구』 제19권 제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2.
- 이명화, 「일제 황민화교육과 국민학교제의 시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0.
- 이인화, 「일본 내셔널리즘의 근원과 근대시기의 국가주의적 변용—기기(記紀)와 무사도(武士道)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78권, 동양철학연구회, 2014.
- 이정선, 「전시체제가 일제의 총동원정책과 ‘內鮮混血’ 문제」, 『역사문제연구』 제29호, 역사문제연구소, 2013.
- 전상숙, 「일제 군부파시즘체제와 ‘식민지 파시즘」, 『동방학지』 제12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 전영길·이성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일제의 토지수탈 사례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9권 제3호, 한국지적정보학회, 2017.
- 정태현·기광서, 「일제의 반인륜적 조선인 강제노동동원과 임금 탈취」, 『역사와 현실』 제5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 정 형, 「근대 일본의 전쟁영웅(戰爭英雄) 창출에 관한 고찰—메이지기(明治期) 군국주의(軍國主義)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동양학』 제5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3.
- 정혜경, 「일제 말기 강제연행 노동력 동원의 사례: ‘조선농업보국청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2.
- 차남희, 「일본의 시민종교와 신도—메이지 초기의 국가신도를 중심으로」, 『담론201』 제12권

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9.

최윤수, 「내선일체와 탈식민주의」,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최재성,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연구소, 2010.

한 연, 「마해송 동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9.

허중호·리철홍·공명성,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발 실상」, 『역사와 현실』 제5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3. 단행본

김성준,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말살정책 연구』, 경인문화사, 2010.

원종찬,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Allegory of Japanese Imperialism in
Korea and Chinese Children's Story

—Focused on *The Rabbit and the Monkey* and *The Golden Duck Empire*

Dou Quanxia

This study analyzed allegory of Japanese imperialism in Korean and Chinese children's story, focused on *The Rabbit and the Monkey* and *The Golden Duck Empire*. Korea was the colony of Japan, so allegory of Korea was also analyzed in this study. In *The Rabbit and the Monkey* and *The Golden Duck Empire*, can check the allegory of Korea and Japan in common.

The Rabbit and the Monkey and *The Golden Duck Empire* also has an allegory about the king of Japan. The king monkey in *The Rabbit and the Monkey* shows the aggressiveness and imperialism of the monkey country. *The Golden Duck Empire* parodies the story from the creation of the Bible, and there is an interesting feature that the Golden Duck God creates the duck god and the duck poo goddess. This is a satire on the Japanese king and queen. *The Golden Duck Empire* also has an allegory about chivalry of Japan.

The Rabbit and the Monkey and *The Golden Duck Empire* also has an allegory about the exploit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The Rabbit and the Monkey satirized the colonial exploit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and criticized it through allegory. *The Golden Duck*

Empire has detailed alleg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rrounding Korea at that time. This confirms that Zhang Tianyi was very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colonizing Korea by Japanese imperialism.

Zhang Tianyi's creation reminds Asian readers who are opposed to imperialism and fascism and try to overcome the internalization of racism,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and orientalism agai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Children in Korea and China can get a sense of question about imperialism and fascism easily and interestingly by reading *The Rabbit and the Monkey* and *The Golden Duck Empire*. The two works can be evaluated as excellent examples of children's story that use allegory.

■ Keywords: Ma Haesong, *The Rabbit and the Monkey*, Zhang Tianyi, *The Golden Duck Empire*, Korean children's story, Chinese children's story, Japanese imperialism, allegory

■ 논문접수일: 2018. 11. 15. / 심사기간: 2018. 11.22~12.02. / 게재확정일: 2018. 12.05.